

삼위 일체 대축일

기도서 313 편

- 제 1 독서 : 신 명 4, 32-34, 39-40
- 제 2 독서 : 로 마 8, 14-17
- 복 음 : 마 태 28, 16-20

# 숲 정 이

발행 원 인 : 전주교전주교구  
 편집 인 : 사 목 관 리 국  
 인 쇄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5098 ③ 3201

□ 강 론



## 사랑과 공동체의 원형이신 하느님

이 태 주 신부

“신부님!”  
 “성부는 누구예요?”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성자는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또 성신은요?”  
 “그분은 하느님의 사랑이십니다.”  
 “신부님! 그러면 하느님은 도대체 몇분이지요?”  
 “한분이십니다.”  
 “그래요???”

참으로 알아 들을 수 없는 신비요, 모순과 같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비가 다른 많은 신앙의 교의를 알아듣게 하는 빛이 되며 또 그 많은 계시진리가 이 신비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신비가 말로 가장 근본되고 본질적인 신앙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신비가 신앙만으로 파악된다는 사실이 인간 지성과 상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신비를 어렵게 말씀드리기 보다는 사랑과 공동체의 원형이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사랑 안에 이미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토록 당신의 사랑과 희생을 쏟은 것은 인간이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은 주님의 뜻이요 계명입니다. 사랑의 계명이란 하나가 되므로써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원인은 하느님이며 과정은 사랑이고, 그 결과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의한 것으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결과를 향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갖었다고 하면서 서로 일치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랑이 거짓임을 뜻합니다. 반대로 일치가 있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사랑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결과는 일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장막이 건립 후 하느님 안에 흡수될 그날에 가서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뵈옵게 될 것입니다. 그날 비로소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완전히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룡동 전주교회 주임신부)



## 그러면 그렇지

1  
 살다가 보면 벼라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된다. 항상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꾸미는 사람들도 있다. 대개 꾸미는 사람들은, 보다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보다는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을 얼버무리기 위해서 꾸민다. 그러나 그것은 약한 기둥에 색종이만 바른 꼴이니, 비바람에 견뎌낼 재간이 없다. 결국 언젠가는 풍지박산이 나고 만다. 마치, 눈덮인 쓰레기더미도 우선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눈 녹은 뒤에는 역시 쓰레기에 불과한 것과 같다. 개꼬리는 아무리 땅에 묻어두어도 역시 개꼬리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2  
 이야기 하나—「피곤하고 할일이 밀린 어떤 아버지가 전화받는 일이 두려워서(나오라고 불러낼까봐서) 어린 자식에게 일렸다. “아빠를 찾으면 나가셨다고 말해라”고. 얼마 뒤에 방문을 약속한 손님이 오기로 되었다. 나가서 놀라는 아버지에게 “아빠, 손님이 오시면 크게 소리내어 책을 읽을까?” 하고 어깨를 으시였다.—솔직한 대화가 없는 가운데 아버지는 자식에게 엄청난 잘못을 가르치고 만 것이다.

3  
 우리를 슬프게 한 ‘장여인 사건’ 좀 보자. 선의의 국민들을 맥빠지게 한, 정말로 분통이 터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당국의 발표때문에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자는 야당의 주장이 묵살되고만 것이다. 국제적인 체면과 경기의 침체때문이라는 구실이, ‘알 권리’를 가진 국민들의 소망의 막을 내리게 했다. 새시대에 대한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고만 것이다. 그러면 그렇지. ‘민나 운운’의 일본말 유행어가 나돌만도 하다.

## 숲 정 이 산책







# 어느 팔방미인의 고백

김 광 태

# 은인을 구합니다

## 十 주님의 평화

본당 사무장으로 부임하니 “너 임마, 사무장은 팔방미인이래야 하는 거여” 하시던 어떤 신자의 말이 무슨 뜻인지 무심코 듣고 업무를 시작한지 2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새벽미사를 준비하려고 자전거를 타고 오는 데 밭새 어찌나 눈이 많이 내렸는지 밭인지 신작로인지 분간할 수 없어 가로수를 들이받아 이마에 혹이 붙었던 일, 또 경리장부 정리하는 시기, 전기 고장 수리공인 한전 직원, 전화기 수리공인 60번 아저씨, 나무에 올라가는 아이들을 혼내주는 악질 아저씨 등... 즐거운 일도 많았을 텐데 괴롭던 일만 생각나는 이 순간, 그러나 괴로웠던 만큼 보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보니 그제서야 팔방미인의 뜻이 실감나게 느껴졌다는 말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 무엇을 먼저할까 망설이다가 성당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바라보며 앉아 있노라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팔방미인의 성소를 주었노라” 하시는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밖으로 나오면 해야 될 일의 실마리가 풀린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던 그동안, 잠기 몸살 한번 없이 하느님께서 나를 팔방미인으로 이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팔방미인에게 큰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2년전 팔방미인이 아닌 사무장으로 부임할 시에는 오로지 봉사의 뜻을 품고 출발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단순한 직장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괴로운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찌하여 이 팔방미인의 신상에 변화가 생겼을까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신자분들이 본당에 대한 관심과 팔방미인에 대한 인식을 좀더 새롭게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또 본당에서 실감나게 느끼는 것인데 상당수의 신자분들께서 봉급 주면서 사람을 채용했으니까 나는 그저...

그정도의 생각 말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분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협조가 있을 때 본당은 발전할 것입니다. 오늘도 잡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께 용서를 청하며 기도를 바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팔방미인의 성소를 주셨다면 모든 것이 저의 뜻대로가 아니라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신자들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자기 가정을 생각하는 만큼 본당 발전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청합니다.” 아멘.

<함열 천주교회 사무장>

저희 본 수도원은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창설하신 제 2회 수도회로써 철저한 가난의 정신을 따라, 그날 그날 생활은 주님의 안배하심에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관상수도회인 성 글라라 봉쇄 수녀원입니다.

독일에 본원을 둔 저희 수도원을 한국에 창설하도록 첫 주춧돌을 전주 교구청에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대지 5,000평을 기증해 주셔서 저희들은 1981년 8월 15일에 전주교구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일년동안 거의 독일 전역을 통하여 은인들을 구하여 온바, 그분들의 도움으로 수녀원 신축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으며, 골조 공사까지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여러 은인들의 도움으로 벽돌 쌓아 올리는 일을 하고 있으나, 자금사정으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기가 어렵게 되어 이렇게 죄송하움께도 은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습니다.

미약한 저희들은 은인들을 위하여 특별히 성체홍송 시간애와 단체와 개인적으로 기도드릴 것이오며, 일생동안 저희들 본분중의 하나로 살고 기도로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의 풍성하신 은총을 빌어 드리며 죄송한 마음으로 삼가 도움을 청하옵니다.

장 마리아 그라치아 수녀 올림

## <보내시는 방법>


구좌번호(온라인)

- 조흥은행 : 702-1-034716 김재덕(주교님)
- 외환은행 : 41-18-5884-0 김용태(관리국장 신부님)
- 제일은행 : 700-10-012970 김용태( " )
- 중소기업은행 : 182-02-0074-825 장민숙(원 장 수녀님)
- 농 협 : 503-1-35393 장민숙( " )

성 글라라 봉쇄 수녀원

주소 : 510-12 전북 익산군 팔봉면 월성리

전화 : 이리 ⑤ 5 5 6 9

 코오롱 맨스타 호성 맨하탄

**전주특약점**

바바리·콤비·잠바·T셔츠·남방·사파리·바지·맨하탄 Y셔츠·넥타이 ★ 국민카드 가맹점  
전화 ④ 4561 김돈중(아드리야노)

주단·포복(훈수·회갑웃감)도매상  
각종 숄, 이불(핑크)카펜저도매상

**서울주단**

전화 ③ 0453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 안토니오

**대한 도장 공사**

**지하수 개발공사**

<노루표 페인트 대리점>  
대형기계 보링, 지하수개발 각종 페인트칠 전문, 페인트 판매, 기타 일절  
전화 ④ 4874 김 의 화(요셉)

금·은·보석·시계

**일성당**

정읍 중앙동  
제일아카데미 내  
전화 6429  
송 베드로(관룡)  
남 베로니카





## □ 200주년 전주교구 위원회 조직 완료

1984년도에 맞이하게 될 천주교 한국전래 200주년을 앞두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전주교구 위원회의 조직이 완료되어 그 임무에 착수했다.

위원장에 김 환철 교구장 직무대행 신부님을 모시고 상임위원은 교구 참사회 신부님들과 평협 회장단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기획운영위원장과 재경위원장에는 교구 사무국장 신부님과 관리국장 신부님께서 각각 담당하시고, 사무국장에는 유 장훈 신부님께서 맡으시게 되었다.

집행부서로서는 기념회의, 정신운동, 기념행사 그리고 기념사업부를 두고 담당책임자는 아래와 같다.

1. 기념회의 : 위원장-김치삼 신부, 부위원장-천 건(해성고 교장)
2. 정신운동 : 위원장-안복진 신부, 부위원장-조성호(복자 사도회장)
3. 기념행사 : 위원장-법석규 신부, 부위원장-이종두(전동 사도회장)
4. 기념사업 : 위원장-서석기 신부, 부위원장-박광문(중앙 사도회장)

그런데 금번 조직의 특성은 교구 기존조직과 일치된 점과 교구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점이다. 많은 관심과 성원있으시기 바란다.

## □ 고창성당 「사랑스런 어머니」 꾸리아 창설

지난 5월 30일 성신강림 대축일에 고창 성당에서는 전신자 1일 레지오 연수회를 개최했다. 5개 브레시디움으로 「사랑스런 어머니」 꾸리아를 창설하였는데, 초대 단장에 정일완(비오)씨가 선임되었다.

단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이제 고창 성당에도 꾸리아 설립을 계기로 레지오의 꾸리아가 밝혀 은총의 비를 맞고 새싹이 돋아 레지오를 통한 평신도 사도적 수행을 효과적으로 하게 되었다”면서 신명을 바쳐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 □ 농촌 일손을 돕자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라는 말이 있다. 물론 먹기 위해 살아가는 이들은 없겠지만, 살기 위해서 먹는다면 우리 모두 한번쯤 생각해야 할 때가 요즘이다.

요즘 농촌은 고사리 손도 빌려 써야 하는 농사철이다. 연약한 노인들과 부녀자들이 농촌을 지키며 우리들의 식생활을 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새벽부터 해 진취 까지 굶은 허리가 꺾일시간이 없도록 논밭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형제들이 있다. 우리는 이들의 고통에 동참하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 실천했는가? 주말이나 아니면 하루쯤 농촌 일손돕기로 농사 형제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지? 본당 공동체의 해도 이전 반월이 지났다. 단체별로 본당은 공소를, 도시는 농촌을 돕는 활동을 통해 사랑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공동체를 튼튼히 다져나가자.

## 숲정이 「광고」이용 안내

교구보 숲정의 보다 활발한 편집 운영과 대외 홍보성원 및 교우 상호간의 친교와 유대 협력관계를 위해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교협 차매 여러분의 배전의 관심, 성원과 많은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광고 한 칸 1회 5,000원, 만화 「요십이」 밀의 칸은 10,000원

## 요십이 (461) 김병오



성당수준의 교직원(제르니, 쏘나타) 소회자에게 악보없을 시도 반주해낼 수 있는 세미 크라식 반주법의 휘소식

### 째즈 · 크라식

## 피아노 반주법

자 본당 전자오케 구입시 상담 및 협조해 드립니다.

성악 : 음대 지망자나 가요계 지망자

전화 ④ 3770

이일규(알토이시오)

※ 구역전과 전교중간 사거리 전북은행 노송동지점 앞

□ 금·은·보석·시계는 남문옆 교우집을 찾아주세요

### 금 보 장

(전,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전주 남문옆(대지탕 입구)  
전화 ④4989(사구팔구)

□ 회 소 식

### 독사뱀 물린데 단시간 치료

◎ 백발 백중 완쾌

전주시 전미동 1가397번지 <전당리 시내버스 종점>

정미소 뒷집)

☎ 5-3544

송준의(발라바)

꽃과 음악

그리고 휴식이 있는 곳

## 전주 (꽃) 직매장

개업일자 : 6월 18일 전주백화점 옆(판통도로)



제 7 지구 각 본당 소식



1. 성체회 중신 허원식 : 일시-6월 10일 오전 11시, 장소-노송동 천주교회
2. 축! 영명 : 6월 11일 박 영규(성 발라바) 신부님, 6월 13일 권 영균·양재철(안포니오) 신부님 함께 기도중에 기억합니다
3. J·O·C 훈련회(전북·전남) : 일시-6월 12일, 장소-가톨릭 센터
4. 제 3지구 학생회 체육대회 : 일시-6월 6일, 장소-이리 농고 교정, 많은 성원 바랍니다
5. 제 4지구 중·고등학생회 체육대회 : 일시-6월 13일 오전 8시 30분, 장소-해성중·고교 교정



전화 16번 주임 신부 박창신 사도 회장 이삼영



전화 0065번 주임신부 서석구 사도회장 김종익

1. 6월달은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2. 예비자 교리 : 매주 공식미사후
  3. 대의원 정기총회 : 공식미사후 있음
  4. 농민회 : 다음주 미사후 있음
  5. 숲정이 성지 제대헌금 : 두여리-박덕례 7,000원 감사합니다
  6. 금주전례 : 서석권·김종원, 봉헌-남산구역  
차주전례 : 박노현·전상규, 봉헌-화회정공소
- ※ 년중 감사헌금 속히 납부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54,560원

1. 사도회 월례회 : 공식미사후
2. 까리따스 월례회 : 오늘 밤8시
3. 5월달 본당 유지비 결산보고  
전월 잔고-2,410,846원, 금월수입-1,388,276원,  
금월지출-1,284,060원, 현잔고-2,515,062원  
※ 년중 봉헌금(교무금) 수입액-54.8%  
금주봉헌 : 청년회, 차주봉헌-까리따스회



전화 망성 71번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최갑철

1. 사도회·예비자 교리 : 공식미사후
  2. 유아세례 : 7일 저녁미사후
  3. 6월은 예수 성심 성월 : 죄일들로부터 받는 배운 망  
덕을 우리의 기도, 희생으로 바쳐 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 60,235원



전화 160번 주임 신부 현유복 사도 회장 김종현

- ※ 삼위일체 대축일 : 천주 성삼계 찬미와 영광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1. 예수 성심 성월 : 열심히 기도하고 일합니다  
-기도서 21면
  2. 주일을 거룩하게 : 바쁘신 농번기에 미사, 공소 예절에 꼭 참여하시고 일합니다
  3. 사목회 : 공식미사후-구역 공소회장님 참여를
  4. 미사시간 변경 : 아침미사-5시,  
저녁미사-8시 30분
  5. 데레사회 : 11일(금) 오전 10시
  6. 전례 : 금주-김재중·이만수, 공소회장  
차주-신춘순·박수규, 구세주의 모친
- 지난주 봉헌금 : 84,860원



전화 30번 주임 신부 강덕창 사도 회장 노진래

1. 구역장 회의 : 공식미사후
  2. 구역회의 : 금주 목요일
  3. 성모회의 : 다음주
  4. 본당 논 모내기 : 6월 13일 오후  
우리들의 논 모내기에 다함께 참여합니다
  5. 성가대장 회의 : 12일, 장소-가톨릭센터
  6. 천주십계 3계명 : 농번기라도 주일만은 지킵시다
  7. 년중 봉헌금 : 하루속히 납부하여 교회살림 도움시다  
감사헌금 : 본당-천봉순 10,100원(봉급의 11조)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옵기를...
- 지난주 봉헌금 : 79,050원